

중국 역사를 넘어 황해 역사로

《장강을 넘어 역사를 넘어》 펴낸
지용택씨

그 중에 일부분인 셈이구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장대한 문화적 유산을 보면서 참으로 거인들이 많기도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의 중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중국은 거대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한 연유를 장강의 기운에서 찾고 있다. 중국이 아편전쟁의 아픔을 겪기 전에는 황해를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지만, 오늘날에는 장강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리없이 흐르는 장강의 모습처럼 중국은 황해를 중심으로 세계적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지이사장은 발견한다.

“대국으로 거듭나는 그들과 황해를 나눠 가진 우리나라, 특히 인천으로서는 중국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들을 좀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연구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탐험서 시리즈물을 펴낼 욕심으로 오늘도 바쁜 시간을 쪼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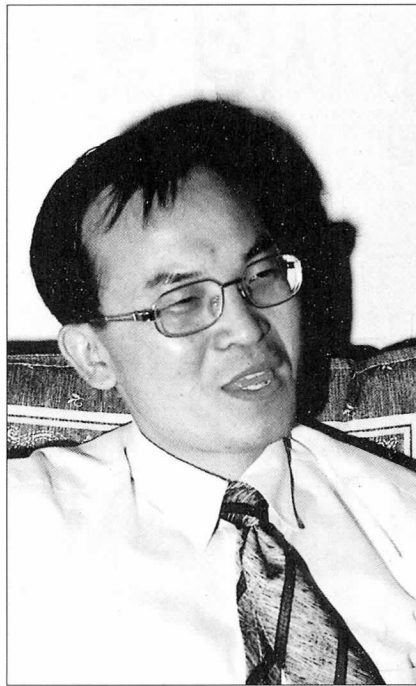
— 오완진 기자

개항 1천년이 넘는 인천. 황해의 물결은 아직도 넘실거리는데 남북분단과 중국과의 오랜 국교 단절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인천에서 태어나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의 경력을 거쳐 이제는 지역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용택씨(62, 새얼문화재단 이사장)가 발로 쓴 중국 역사탐험서 《장강을 넘어 역사를 넘어》(형성사)를 통해 황해를 상기한다.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학구적 또는 지역적 의문 때문이었다. 개방화 열풍으로 문화를 활짝 열어젖힌 중국을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진전 속에 공해지역으로 떠오른 황해가 어떤 위치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쟁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없다면 우리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황해의 운명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 전부터 ‘지피지기(知彼知己)’를 위해 중국을 다녀온 것만도 벌써 11번째. 5천년 장구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유용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적 자취가 문헌 ‘하얼빈’에서 최근 개방화 열풍이 불고 있는 남단 ‘곤’까지 광활한 중국 땅을 들쭉시고 다니면서 수많은 인물을 만났다. “그들이 남겨 놓은 역사문화적 자취를 통해 무언의 대화를 나눈 셈이지요. 책 속에 들어 있는 많은 시구(詩句)들도



삶과 죽음 오가는 수술실의 수문장

《마취과의사는 이름표가 없다》 펴낸
이관우씨

없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생명과 너무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완전하고 가시적인 치료현상이 일어나는 수술실과 그곳에 흐르는 긴장감을 사랑한다. 이교수는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늘 환자에게 기도를 해 준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는 안정과 희망을, 자신에게는 자신감과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하던 어떤 환자는 마취로 의식을 잃어가면서 기도하던 제 손을 꼭 쥐더군요.”

죽은 지 5분된 환자를 응급처치로 살려낸 후로 그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사람들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거저서 비롯됐다. 사람들이 수술실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과는 달리 수술실은 병원 내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일 뿐 아니라 희생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진 요술공간이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관우 교수는 부족한 내용을 앞으로 계속 보충해 나갈 생각이다.

— 이현주 기자

수술을 하려면 먼저 마취를 해야 한다. 마취는 신체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시적인 죽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수술과정에서 수문장 역할을 맡는 마취과 의사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들은 언제나 집도의의 보조원으로서만 이해되고 있다. 8년째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관우 교수(38, 단국대 천안의대)는 마취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마취과의사는 이름표가 없다》(정문여행비즈니스)를 펴냈다.

“수술과정에서 마취과 의사는 환자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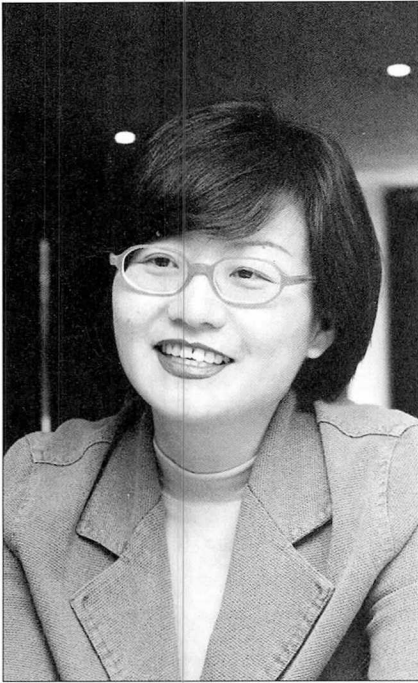
그들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박동과 혈압을 지키고, 영양을 공급하고, 출혈이 심해지면 수혈을 한다. 신체에 고르게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 고심하다가 혹시라도 호흡이 이상해지면 인공호흡을 한다. 하지만 이미 가사상태에 빠진 환자들은 마취과 의사들의 맹활약을 알 리 없다.

“수술실에 들어온 환자들에게 마취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알려주면 겁부터 먹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임산부가 마취를 하면 태아가 선천성 기형이 된다거나 전신마취를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등의 속설은 마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교수는 이같은 속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 또 노인·어린이들의 수술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른 마취의 차이점 등, 일반 환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마취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다른 과 의사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제 선택을 한번도 후회해 본적이





모래시계 세대의 내면풍경

《우리는 자유로에서 다시 만났다》
펴낸 강영희씨

긴장된 대화와 갈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딪침으로써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경숙은 현실과의 맞대면에서 도망쳤다가 문학의 주술을 빌려 그 시절의 '마루밧' 꿈을 되살려냈고, 박광수는 논리적 사고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눈을 돌려주었다. 속도전에 대한 강박관념을 훨훨 벗어 버리고 민주적인 보편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임순례, 우리의 사고와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중단없는 전진'이라는 허를 비집고 들어선 이인화 등도 80년대적인 체험을 자기식으로 육화한 사람들이었다.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당위에 묶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억누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자기를 열어놓기 시작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 두번째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문화의 진경산수 전경을 그려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은 그녀가 전통예인들을 찾아떠난다. 그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우리 삶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생의 에너지를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 박천홍 기자

지나간 시절은 아름다웠든 쓰라렸든 마모되어 희미한 흔적을 남기거나 가끔씩 씩씩한 웃음을 짓게 하는 빛바랜 일기장이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기억과 함께 자신을 에워쌌던 시대의 배경도 각인되어 있다. 80년대라는 광기어린 연대를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던 세대들에게 그 시절은 여전히 내연(內燃)의 상처로 남아 있다.

그 시절을 뜨거운 입김으로 호흡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숨결로 삶을 조율하고 있을까. 문화평론가 강영희씨(39)가 《우리는 자유로에서 다시 만났다》(풀빛미디어)에서 던지는 질문이자 화법이다. 90년대적인 문화지형도에서 가장 도드라진 등고선을 그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80년대를 더듬어봄으로써 집단적 체험이 어떻게 개인의 삶 속에 투영되었는지 복원해보고자 한다.

“80년대는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적었습니다. 역사와 사회라는 거대담론에 밀려 배후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90년대에 공적인 담론의 장에서 자신을 표현한 사람들을 만나 부딪침으로써 우리 세대를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은 소설가 신경숙·마광수·공지영·장정일·이인화, 만화가 박재동·박광수, 영화감독 변영주·임순례·김동원, 극작가 송지나·주인석 등 12명의 문화예술인이다.

“그들은 '모래시계 세대' 이거나 그 세대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변인물들입니다. 제가 인터뷰라는 형식을 택한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삶과 입장이



“찬란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도서출판 주류성의 신간 안내

백제를 다시 본다



최몽룡 편저
국판 352면 9,000원

이 책은 서울신문에 9개월동안 연재되었던 “백제사를 다시 본다”라는 글들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권에 모은 것이다. 필자들은 편저자인 최몽룡 서울대학교수를 비롯하여 학계의 권위자로 모두 20인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분야도 고고학, 고대사, 종교학, 공예, 민속, 언어, 성곽과 복식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문화를 다룰 수 있는 전문분야에 걸쳐 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의 백제사 관계자료를 종합해 알기쉽게 풀어쓴 백제사의 길라잡이인 셈이다.

웅진백제사연구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게 수도 한성을 함락당한 백제는 차령산맥과 금강이 천연의 방어벽을 형성해 주었던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였다.

전체 백제사에서 웅진시대는 5대 63년에 불과하지만, 그 역사상의 의미는 실로 큰 것이었다. 본서 『웅진백제사연구』는 백제의 재기를 가늠해볼 수 있었던 웅진도읍기의 역사적 사료들을 모은 귀중한 연구서가 될 것이다.

유원재지음, 신국판 양장본 300면 15,000원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한 무장의 비장한 생애에 대한 변명

백제 멸망 당시 백제 부흥군의 장군으로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다가 실패로 끝난 후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 활약했던 흑치상지의 생애가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과 함께 파노라마처럼 엮여진다. 조국을 망하게 한 적국의 장수가 된 흑치상지의 곡절많은 생애와 흑치상지만이 가질수 밖에 없었던 백제장군으로서의 고뇌와 번민이 드러나고,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참군인으로 살다가 끝내 죽음을 맛았던 흑치상지의 생애와 백제의 역사가 장중하게 펼쳐진다.

이도학 지음/신국판 320면 9,000원

도서출판
주류성
전화 567-1024
팩스 553-0656

周留城은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백제의 부흥군이 최후의 항전 사령부로 삼고 싸우던 백제의 옛 성입니다. 도서출판 주류성은 찬란한 백제 문화와 백제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려 21세기의 문화창달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백제사 전문 출판사입니다.